

# 묵주기도의 모후 축일

## 2017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10월 7일 오늘, 도미니코 수도회 전체와 온 교회와 함께 우리는 묵주기도의 모후 축일을 지냅니다. 선교사인 우리들에게 이 축일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에서 말씀하시듯이 성모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삶에서 우리를 동반하시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신앙에 열어 주시는 선교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친밀한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교회는 마리아 안에서 자신의 신비를 봅니다. 마리아는 처녀다운 신앙의 모범이시고, 모성적 사랑과 신부의 계약의 모범이십니다. 완전한 피조물 마리아는 유일무이한 여인이시며, 그 위에 성령의 그느르심이 내려오시어 첫 창조를 환기시키십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에” 복되신 “주님의 종”이시고, 하느님께서 눈여겨 보시고 그 안에서 당신 신비를 이루신 미천한 이이시며, “여인들 가운데 복되시고” “모든 세대가 그를 복되다 일컬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탄생 예고 때에 당신의 “예”를 말씀하심으로써 성령께 당신 자신을 내맡기셨습니다.

성령의 모든 선물들이 마리아 안에서 나타납니다. 사랑, 기쁨, 평화, 관대함, 친절함, 착함, 믿음, 온유...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한 이, 하느님께서 당신 성자를 위해 마련하신 지극히 합당한 거처이십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지닌 변화의 무한한 능력이 마리아 안에서 가득 채워집니다. 마리아는 구원을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주님의 가난하고 미천한 이들 가운데 뛰어나십니다. 마리아의 지향과 신념은 처음부터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모님을 닮아 우리에게서도 언제나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쁘고 거룩한 묵주기도의 모후 축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적 포옹과 기도를 보냅니다.

  
총장 M<sup>a</sup>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